

알코올문제의 사회적 의존에 대한 소고

김 광 기

(인제대학교 보건관리학과)

목 차

I. 서 론	V. 음주행동의 규범적 근거
II. 알코올의 사회적 의존	VI. 음주규범과 사회적 의존의 연계
III. 알코올의 심리적 및 생리적 의존	VII. 결 론
IV. 사회적 의존의 경험적 근거	참고문헌

I. 서 론

음주가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시게 되어 결국에는 본인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또는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알코올 섭취가 음주자 자신과 그 가족 또는 주변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자주 반복적으로 마시는 이유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 실천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 중의 하나이다. 인간의 행동이란 어느 한 가지 학문영역만으로는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학제간 연구를 통해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음주행동이란 이러한 면에서 학문적으로 매우 흥미있는 연구대상 중의 하나이다

(Straus, 1983). 음주행동이란 하나의 생심리사회적(biopsychosocial) 행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종의 일탈행동인 음주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학문적 이유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음주 인구가 많으며 일인당 알코올 소비도 매우 높은 사회에서는 이들 연구가 갖는 가치와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음주에 대하여 매우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이지만 음주로 인한 사회 전체적인 피해를 인식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을 마련하는데는 매우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양태나 음주관련문제(alcohol-related problems)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¹⁾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사회와 개인

1) 지금까지의 연구 중 모집단을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음주양태 또는 음주관련문제에 대한 조사는 없다. 다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두 번에 걸쳐 실시한 건강행태조사(1990년의 국민건강조사; 1993년의 보건위식행태조사)의 일환으로 음주양태에 관한 기술역학적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이외에도 전체 국민이 아닌 지역사회를 모집단으로 하는 음주양태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표본의 대표성이나 조사내용이 제한적인 실태이다. 음주관련문제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알코올중독자와 같은 일부 임상집단(clinical population)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에게 미치는 폐해는 엄청나다고 여겨진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일부의 사람, 즉 입원치료를 요할 만큼 음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알코올 폐해가 크다는 인식에서 선진국에서의 알코올 정책은 임상인구 (clinical population)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general population)을 대상으로 공중보건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에 초점을 맞춘 알코올 정책의 논리에 따르면, 병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들 보다는 알코올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가정폭력 또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사고, 신체적 질병 등을 저지르게 되어 이로 인해 결과되는 문제가 더 임상인구들에 의한 문제보다 심각하다.

그러나 이것들은 병적인 음주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예방하기 용이하고 또한 그 폐해도 상대적으로 쉽게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보건학적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엄청난 폐해를 인식하여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음주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이와 함께 음주로 인한 문제의 크기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관련된 원인론적 요인들 (etiological factors)에 대한 역학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학적인 정책이나 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치밀하게 연구설계된 음주양태나 음주관련 문제에 관한 원인론적인 역학조사연구들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원인론적인 연구란 생심리사회적 요인들을 종합하고 있는 모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요망스러우나 (Straus, 1983) 본 논문은 음주문제의 원인론적 연구를 위한 시작으로서 음주문제의 원인이 개인에

게 있다기 보다는 개인에 외재하는 것으로 사회에 있다는 다분히 사회문화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음주행동이란 사회적으로 학습된 행동이라는 입장에서 알코올의존 (alcohol dependence)의 종류를 살펴보고 알코올의존에 이르게 되는 첫 관문은 사회적 의존 (social dependence on alcohol)이며, 사회적 의존의 구체적인 근거들을 정리하려는 것이다.

사회적 의존에 대한 개념은 Straus (1983)에 의해 소개된 이래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의 음주양태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한 개념이라고 여겨진다. 본 논문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회적 의존에 관한 문헌고찰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는 내용과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사회적 의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공중보건학적인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음주문제를 사회문화적인 입장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이외의 다른 요인들-생물학적, 심리학적-이 음주행동 또는 음주문제의 형성과 발달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II. 알코올의 사회적 의존

알코올문제 (alcohol problems) 또는 일탈적인 음주 (problem drinking)²⁾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코올이 인간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인간의 신체적인 반응은 아주 다양하다는 것 (Straus, 1984)을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알코올로 인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음주자가 자신에게 “너무 많은 양”을 마실 때 발생한다. 과음이란 음주자 자신에게 “너무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을 의미하지만 어느 정도의 양을 “너무 많은 양”으로

2) 본 논문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며 음주로 인해 본인 자신 또는 주변의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술을 적당한 정도로 통제하여 마시지 못하여 알코올을 남용 (alcohol abuse) 하게 되거나 알코올의존 (alcohol dependence) 또는 알코올중독 (alcoholism)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져야 한다. 여러 가지 생물학적, 행동과학적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과음여부가 결정된다. 알코올에 과민한 사람에게는 한 잔의 알코올이라도 과음이 되어 어지러움과 같은 생리적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며, 알코올을 한 모금이라도 하게 되면 사회적 제재(sanctions against drinking)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잔의 음주로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알코올에 별로 민감하지 않아서 술로 인해 어떤 생리적인 불편이나 기능장애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잔의 음주라도 “너무 많은 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술을 취할 만큼 마신 경우라도 이런 것이 과음을 강력히 지지하는 상황에서 마신 경우에는 “너무 많은 양”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은 양을 마시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똑같은 양에 대하여 아침에 마실 때는 “너무 많은 양”이었던 것도 저녁에는 아닐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20대에 마실 때는 “너무 많은 양”이었던 것이 30대, 40대, 50대 및 그 이후에는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생리적 상태에 따라서 “너무 많은 양”이 달라진다. 아프거나 긴 여행 후에 마시는 것과 건강할 때 마시는 것은 다를 것이다.

이처럼 어느 정도가 “너무 많은 양”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간 그리고 개인내에서도 다양한 것으로 생심리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복합작용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차이는 일상생활의 음주에서 종종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자신이 의미를 두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요구하는 음주규범에 순응하기 위하여 즉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인지된 필요성(perceived need) 때문에 자신에게는 “너무 많은 양”을 반복적으로 마시는 경향을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다.

Straus(1983)는 이를 알코올에 대한 사회적 의존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생리적 또는 심리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이라고 인식하여 자신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여 마시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역할 수행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회적 의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의존은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Straus, 1983). 술에 대한 민감도나 술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 면에서 개인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양을 어떤 방식으로 마시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사회문화적 음주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들은 개인들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기준에 준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들 규범에 의해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된 양(amounts)보다 적게 마시는 역량(drinking capacity)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양”을 마셔야 하는 사회적 기대에 자주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음주가 주로 집단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의존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사회적 의존을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청소년집단이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동료로부터의 사회적 인정(social acceptance)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동료들의 사회적 기대가 있을 경우 이에 순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알코올에 대한 소화능력을 상회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알코올에 대한 내성(tolerance)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아직까지 알코올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알코올문제를 많이 야기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Ⅲ. 알코올의 심리적 및 생리적 의존

알코올의존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 바(Straus, 1983), 이 중 알코올의 사회적 의존이 보건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의존은 다른 알코올 의존-생리적 의존과 심리적 의존-에 이르는 일종의 관문이기 때문에 사회적 의존에 대한 원인론적 과정에 대한 이해는 심리적 의존이나 생리적 의존에 이르기 이전에 예방대책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사회적 의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논하기 이전에 심리적 의존과 생리적 의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적 의존이란 알코올이 음주자의 기분상태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심리적으로 알코올에 대한 욕구(inner-felt needs)를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욕구는 이미 생리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생리적 의존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관찰할 수 있다. 심리적 의존은 여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일이 잘못되고 있다³⁾는 것을 즐기기 위하여, 일이 잘못되고 있다⁴⁾는 느낌을 잊기 위하여, 또는 마시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마시지 않아야 하는데 충동적으로 마시고 싶은 욕구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적인 욕구 이외에도 심리적 의존은 개인의 행동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있지 않더라도 마실 알코올 확보에 계속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알코올에 대한 심리적 의존 탓일 수 있으며 개인의 생리적 변화에 따라 심리적 의존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심리적 의존은 상황에 따라 발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직 주말에만 많이 마시게 된다든가, 여행을 할 때, 또는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일 때 많이 마시게 된다. 간혹, 많이 마시게 되는 심리적 욕구가 생기

는 것이 성적인 이유(sexual activity)와 관련되기도 한다.

생리적 의존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해된 것 같지는 않다(Straus, 1983). 생리적 의존은 의존증이 있는 개인의 체내 알코올 수준이 낮아질 때 나타나는 박탈감의 발현에 의해 진단, 정의되고 있다. 어떻게 생리적 의존에 이르게 되느냐 하는 설명은 몇 가지가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과음에 폭로되어 신체세포가 알코올에 너무 순응되어 있기 때문에 의존증을 가진 개인은 정상적이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알코올이 체내에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있다. 완전히 취했을 때 을 수 있는 극도의 쾌감(orgastic-like gratification)을 경험하려는 충동적 욕구 때문에 또는 금단(withdrawal)의 고통을 피할 필요성 때문에 생리적 의존에 이르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어떤 기전에 의해 생리적 의존에 이르게 되든지 간에 생리적 의존이란 모든 만성 과음자들에게서만 동일하게 발현되는 것이다. 생리적 의존이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가끔씩 경험될 수도 있으며, 이전에 전혀 알코올문제가 없었던 애주가(regular drinker)에게서도 이따끔 관찰되고, 상대적으로 알코올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에게서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알코올에 대한 내성(tolerance)이 증가되는 것을 생리적 의존의 한 근거로 여기고 있으나 내성의 증가가 생리적 의존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내성이 증가하는 것은 알코올에 생리적으로 의존된 사람들에게서는 언제나 있을 수 있으나 내성여부가 생리적 의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채택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왜냐하면 내성증가와 같은 알코올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의 변화란 어떤 음주자에

3) 예컨대, 안정감 또는 행복을 느끼거나, 강한 자신감 내지는 좋은 자아상(good self-image)을 갖거나,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4) 예컨대, 걱정이나 낙담을 느낄 때, 나쁜 자아상을 갖게 될 때라든지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 때 등이다.

게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처음 술을 마시는 사람의 경우, 첫 잔에 대한 민감도가 둘째 잔보다 크기 때문에 민감도의 변화가 관찰되지만 생리적 의존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생리적 의존과 심리적 의존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즉 금단을 보이는 신체상태가 알코올에 대한 심리적 단서 (psychological cues)가 될 수 있고 심리적 또는 환경적 단서-예컨대, 술집을 지나간다는 타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관찰하는 것 등-때문에 신체금단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IV. 사회적 의존의 경험적 근거

음주행동에는 사회적 상호의존성이 있다는 주장은 Bruun(1959)의 연구가 표시이다. 집단내의 상호작용의 결과 성원들간에 마시는 음주의 양과 선택한 알코올의 종류에서 서로 상이해진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영향이란 주로 알코올 소비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며 이때,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알코올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알코올 소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사람인 것이 대체적인 법칙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실험실 상황에서의 관찰에 근거하고는 있으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 음주행동이 유사하게 된다는 음주의 상호작용적 관점의 표시라는 점에서 학문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Bruun의 연구결과를 확고하게 해주려는 노력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실험실 관찰에 근거하여 Caudill and Marlatt(1975)는 음주행동에 본뜨기효과(modeling effect)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연구대상자를 3개의 집단(알코올 소비를 많이 하는 모델이 있는 집단, 알코올 소비를 적게 하는 모델이 있는 집단, 그리고 통제집단으로서

모델이 없는 집단)으로 임의적으로 배당하고 실험목적은 포도주의 맛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지하는 등 실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혼란요인들을 차단하였다. 본뜨기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험집단 2개내에서 모델과 연구대상자들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허락하지 않았다. 일체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연구대상자들이 모델의 행동을 관찰할 수는 있도록 한 실험설계였다. 그 결과 알코올 소비를 많이 하는 모델이 있는 집단(관찰하는 동안 모델은 700ml의 포도주를 마심)에 배정된 연구대상자들이(364ml의 포도주를 마심) 통제집단(180.8ml의 포도주를 마심)보다는 유의한 차이가 날 정도로 술을 더 많이 마셨지만 알코올 소비를 적게 하는 모델(100ml를 마심)이 있는 집단에 배정된 연구대상자들은(141.1ml를 마심) 통제집단보다 더 적게 마시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통제집단과 알코올 소비가 적은 모델이 있는 집단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Garlington and DeRico(1977)은 본뜨기효과가 음주수준의 변화에도 작용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일련의 실험을 하였다. 실험실을 술집(tavern)처럼 설계하고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주량을 알기 위한 연구이므로 평소의 각자 주량(normal drinking)만큼만 마시도록 교육시킨 후, 한 명씩 모델과 같이 마시도록 하였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모델이 연구대상자와 비슷하게 마셨지만 두번째 단계에서는 모델이 정상적인 속도보다 1/3정도 더 마시든가 또는 덜 마시는 것으로 바꾸어서 그 속도를 당분간 유지하였다. 세번째에서는 다시 원래 마시는 속도로 되돌아와서 당분간 정상적인 주량으로 마신 후, 네번째 단계에서 다시 정상적일 때보다 1/3정도 속도를 더 빨리 마시든가 덜 마시는 것으로 바꾼 뒤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원래의 정상적인 음주행동으로 되돌아오는 여러 단계의 실험을 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음주

의 속도를 높이거나 줄일 때 모두 매우 비슷한 정도로 모델을 따라하는 연구대상자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음주행동의 변화, 즉 마시는 알코올의 양이 결정되는데 본뜨기 효과가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로 이해된다.

이들 연구가 타인의 음주행동이 개인의 알코올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연구들은 통제된 실험실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라는 것이 한계이다. 누구로부터 관찰을 당하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실험실 내에서의 행동은 일상에서 개인들이 자연(natural setting) 스타일하게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은 Reid(1978)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미리 훈련된 모델을 사람들이 흔히 가는 술집(bar)에 배치, 혼자 술마시러 온 손님들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도록 하였다. 모델은 많이 마시는 자(시간당 5병을 마심)와 적게 마시는 자(시간당 1병을 마심)로 구분하고 통제집단을 위해 모델이 옆에 앉지 않은 채 술을 혼자 마시는 사람도 연구에 포함하였다. 손님옆에 앉은 모델은 다시 손님과의 상호작용의 환경을 달리하여, 모델이 먼저 말을 건내며 술마시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화기애애한 것과 모델이 먼저 대화를 걸지도 않으며 손님이 이야기를 걸어와도 아주 간단하게 대답만 하는 냉담한 분위기로 다시 구분하였다. 각 연구집단별로 5명의 연구대상자를 배정하여 이들의 음주행동을 기록관찰하였다. 이런 실험에 근거하여 Reid는 음주행동에는 통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본뜨기효과가 크게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많이 마시는 모델과 상호작용을 한 연구대상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상호작용의 환경이 음주행동의 본뜨기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자연상태에서의 음주행동 관찰을 통한 연구는 Collins 등(1985)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 연구팀의 설계는 Reid의 연구와 비슷한 설계에 근거하여 본뜨기효과가 있으며 이것은 상호작용이 친밀하게(warm and friendly) 이루어질 때 더 강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이들의 연구는 상호작용이 냉담하게(cold and unsocial) 이루어질 때는 연구대상자들이 모델의 음주행동에 관계없이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별로 반응이 없거나 냉담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하나의 정서적 부담이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안(coping mechanism)의 하나로서 술을 더 마시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연구들은 소집단 수준에서 음주행동에는 본뜨기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들이나 이 효과가 단순한 모방(imitation)의 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서적인 압력(emotional pressure)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Clarke 와 Saunders, 1988). 한 개인의 음주행동이 타인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주고 받는 사회적 영향에는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개인들간의 정서적 측면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들은 분석수준이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집단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한계이다.

비록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하지 않더라도 음주에 관해서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개인들간의 음주행동에는 상호 의존성이 없는 것인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서로서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회적 연결이라는 맥락에서 음주행동을 설명하려는 입장이 사회적 상호작용 관점(social interactional perspective)이다. 사회적 상호작용 관점은 사회적

본류의 이론적 관심 중의 하나인 거시와 미시의 연결(macro-micro link)과⁵⁾ 축을 같이 할 수 있는 관점이라는 면에서 사회학적으로 또는 알코올 문제의 사회적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노력이라는 면에서 보건학적으로 매우 관심을 끄는 관점이다.

사회적 상호작용 관점은 알코올 사용 내지는 일탈적 음주행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에 의해 설명하려는 노력으로 노르웨이 사회학자 O. J. Skog가 가장 대표적이다. Skog(1980)의 연구는 음주행위를 하나의 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상호작용적인 이론과 방법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음주행위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Skog의 주된 관심은 국민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변화할 때, 과음자 또는 알코올중독자의 유병률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사회연결망내의 상호작용으로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사회수준에서 생성된 알코올 소비에 관한 통계자료가 의미하는 사회변화를 개인수준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려는 것으로 개인이 “너무 많은 양”을 마시게 되는 이유가 사회적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모델인 셈이다. 그는 개인의 음주습관이란 그 개인이 소속된 연결망(network) 상의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제한다. 같은 연결망에 속하는 개인들은 서로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상호작용에 의해 비슷한 음주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알코올남용 내지는 알코올중독자(alcoholic)가 될 생물학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연결망에 속하느냐, 누구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음주습관이 발달될 수 있다. “... [알코올중독자가 될] 소인을 가진 사

람일지라도 알코올을 적게 소비하는 문화권에서 생활하게 되면 과음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신과는 달리 알코올을 많이 마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음주가 일상생활화 되어 있어 알코올 소비가 많은 문화권의 경우에 개인들의 음주량 수준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으며 과음할 소인이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과음을 할 것이다]” (Skog, 1980).

이처럼 Skog(1991b)에 따르면 개인적 차원에서 음주습관의 형성과 변화란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내부적(endogenous) 요인들과 개인의 환경에 관련된 외부적(exogenous) 요인들이다. 내부적 요인이란 알코올중독이 될 생물학적인 소인과 심리적인 특성(알코올에 대한 이전의 경험, 퍼스널리티, 알코올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와 선호와 같은)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외부적 요인은 사회환경적인 것을 의미한다.

알코올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전통,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알코올에 대한 광고 및 태도, 주류이용에 대한 용이성(availability of alcohol beverage), 주류가격 및 기타 알코올과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을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여러 요인들의 상호복합작용에 의해 개인들이 독특한 음주행동을 형성하게 되며 음주행동의 변화도(예컨대 사교적으로만 술을 마시던 사람이 과음자가 된다는가 알코올중독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이들 요인들의 상호복합작용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이들 각 요인들이 어떤 정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Skog는 각 요인들의 영향력

5) 전체 사회구조가 개인의 행동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용하는가 또는 개인수준에서의 행동이 전체 사회구조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등의 사회구조적인 현상과 미시적 수준 즉 개인적 수준에서의 행동을 연결하려는 사회학적 노력에 관심이 있으면 Alexander, J. 등. The Micro-Macro Link,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을 참고할 것.

6) | |은 저자가 덧붙인 말임.

이 가승적(multiplicative)⁷⁾으로 더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음주행동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집단 또는 사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입장이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일 개인의 특정 음주행동은 그가 속한 사회연결망내에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연결망내의 상호작용은 사회연결망간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전체 사회성원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행동에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호작용의 결과 사회연결망내의 성원들이 유사한 음주습관을 갖게 된다는 가설은 대답을 필요로 하는 다른 질문을 낳는다. 상호작용의 결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사한 행동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회연결망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유사한 음주행동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또래선택(peer selection)가설을 반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래선택가설에 대한 Skog의 입장은 회의적이다(Skog, 1991b). 음주행동의 상호의존성을 설명하는 데는 또래선택가설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처음 또래집단을 형성할 때에는 비슷한 성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집단이 형성되고 나면 행동이 더욱 동질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같은 또래집단에서 관찰되는 성원들간의 비슷한 음주습관은 또래선택의 기전으로만으로는 형성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험집단내에서의 본뜨기 효과나 기

타 비실험, 자연상황에서의 관찰에 근거하여 Skog는 음주습관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설명하는데는 또래선택가설보다는 사회적 상호의존성의 결과 유사한 음주행동을 하게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음주행동이란 상호의존성을 갖는 것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연결망을 통해 개인은 음주를 문화적으로 의미있는 사회적 행동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각 개인의 음주행동이 개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때, 상호작용은 어떤 형태인가? 이에 대해 Skog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개인의 음주행위가 사회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직접적인 대면(face-to-face)과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방법이다.

직접적인 대면에 의한 사회적 영향이란 집단수준에서 술을 같이 마시는 사람들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결과 음주량, 마시는 알코올의 종류, 음주간격(interval between drinks) 등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적인 영향이란 개인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이 현장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의 음주행위에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종의 비공식적인 사회통제(informal social control)로 볼 수 있다. Skog(1985)은 이를 “장거리 영향(long-distance influence)”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바, 그 형태도 여러 가지이다.

술에 취해 가정에 돌아왔을 때, 부인의 화난 반응을 미리 예상하여 자신의 음주행위를 통제하는 것과 같은 형태, 타인에게서 새롭게 소개받은 음주행동을

7) 가승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들 여러가지 요인들이 가감적(additive)으로 작용한다는 것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열거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여러 가지 음주 소비수준을 갖는 사회연결망들(예컨대, 폭음자집단, 과음자집단, 보통으로 마시는 음주집단, 사교적으로만 마시는 음주집단 등)의 음주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비례적이라는 의미이다. 즉, 나열된 여러가지 요인들 중, 어느 한 요인의 영향력을 제거하거나 약하게 할 경우 그것이 알코올 소비수준에 끼치는 정도는 알코올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예컨대, 과음자)이 적게 하는 사람(예컨대, 사교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그 예가 된다. 음주행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각각이 가지는 영향력의 크기는 각 개인이 음주행위 변화 이전의 음주수준(initial consumption level)에 따라 비례적이라는 의미에서 가승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Skog, 1991a).

그 사람이 없을 때 한 번 시도해 보는 것⁸⁾도 간접적인 형태의 통제이다. 이외에도 술을 마시지 않을 때라도 술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며 이러한 대화를 통해 술에 대한 태도, 지식, 및 행동이 형성되는 것이다(Skog, 1985). 즉 술의 종류와 맛에 관한 것이라든지, 술을 마실 때의 상황에 대한 대화들에 의해 음주행동이 형성되거나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지적한 본뜨기효과와 함께 사회적 상호작용 관점은 사회구성원간의 음주행동에는 상호작용의 결과 유사한 음주행동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나 이들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음주행동의 사회적 의존성이란 다분히 사회적으로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보다는 하나의 사회적 규범에 의해 특정 음주행동이 발달하는 것이라는 시각은 음주의 사회학적 연구의 기본이 되고 있다. 음주행동의 발달과 변화를 사회적 규범의 차원에서 규명하려는 노력은 알코올문제가 사회적으로 형성 변화한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또 다른 차원을 보태줄 수 있을 것이다.

V. 음주행동의 규범적 근거

사회적 영향과는 달리 규범이란 하나의 문화적 규칙으로서 이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제재나 벌칙이 따른다(Room, 1975). 결과될 수 있는 벌칙은 공식적이고 심각한 것에서부터 비공식적이며 일시적인 것으로 눈쌀을 찌푸리게 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규범이란 이전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일단의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영속성을 갖는 규칙(rule)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음주규범을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연구는 Bales가 가장 고전적인 학자이며 그의 연구는 상당히 포괄적인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White, 1982). Bales(1946)는 음주양태를 결정하는 음주규범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완전금주유형, 음주를 일종의 종교의식의 하나로 여기는 유형, 음주가 친목(convivial)을 위해 사용되는 유형, 그리고 음주의 실용성(utility)이 강조되는 유형 등이다. 완전금주가 규범이 되는 사회에서는 알코올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곳으로 회교국가들이 이에 해당되며 이들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 금주의 규범 그 자체가 알코올중독자 또는 일탈음주자의 비율을 낮게 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완전금주를 규범으로 여기는 몰몬교도들(Mormon)중에 상대적으로 알코올문제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조사연구(Straus과 Bacon, 1953)가 있다. 이들 몰몬교도들에게 알코올이란 일종의 "금단의 열매(forbidden fruit)"로서 유혹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일단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게 되면 그것 자체가 몰몬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Wilkinson, 1970). 이런 맥락에서, 약간의 술이라도 일단 마시게 되면 극단으로 가기 쉬운 뿐만 아니라 오직 금주규범만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통제하여 마시는(moderate drinking) 방법에 대한 행동규범이 없는 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몰몬교도들이지만 알코올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음주를 일종의 종교의식의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는 사회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유태인사회이며 이들 사회가 알코올중독자의 유병률이 가장 낮다고

8) 예를 들어, 친구로부터 폭탄주라는 것이 어떻게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소개받고 그 친구가 없을 때 폭탄주를 한 번 마셔 본다고 하면 이는 간접적인 사회통제의 일종인 것이다.

Bales는 보고하고 있다. 어느 사회보다도 술을 마시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편이면서도 알코올로 인한 문제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낮은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에서 유래된 음주에 관한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정통유대교(Orthodox Judaism) 문화에서는 알코올을 종교의식의 하나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식(ritual)의 하나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때문에 특별한 알코올 관련 문제는 생기지 않게 된다고 본다(Snyder, 1958). 또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눈총을 받는 민족인 바, 그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자기통제(self-control)와 합리적 행동을 강조하는 문화를 발달시키게 된다. 따라서 술을 마실 때 자신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잘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중독자가 되는 사람이 별로 없게 되는 것이다(Glazer 1952). Glassner와 Berg(1980)는 유대인들이 일탈적인 알코올 사용을 자제하게 되는 사회 통제 과정을 네 가지 나열하고 있다. 알코올 사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사회통제 과정이 있으며, 두번째로는 정통유대교에 대한 신앙심이 많이 약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종교적, 의식적인 전통이 남아있어서 음주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세번째 사회통제 과정은 유대인들은 주로 인간관계를 유대인들 하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적당히 통제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과음을 권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부터 벗어나는 여러 가지 기술(repertoire of technique)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문제가 되도록 마시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 한 예로 파티에서 칵테일 한 잔으로 몇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요령을 학습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음주가 친목을 위해 사용되는 사회에서는 술을 잘

이 마신다는 것은 서로의 유대감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면에서 다분히 의식적(ritual)인 성격이 있지만, 음주자가 기분이 좋아지는(good feeling) 것을 기대하여 술을 마신다는 면에서는 다분히 실용적인 성격을 띤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규범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알코올이 치료를 위해 의약으로 활용된 다든가, 개인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또는 사업상의 거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시는 것 등 음주가 실용적인 이유에서 행해진다. 이러한 규범이 있는 사회에서는 과음자나 알코올중독자와 같은 일탈적인 음주가 조장되기 가장 쉬우며 특히 사회내적으로 긴장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Bales의 연구는 집단의 규범이 다를 경우 상이한 음주행동이 형성 유지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집단의 규범이 음주행동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는 Pittman(1967)과 Ullman(1958)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다. 특히 과음을 금지하지만 적당히 마시는 것은 허용하는 음주관행, 가치관이 있는 사회에서 알코올중독자의 발생이 가장 적다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고전사회학자 Durkheim의 이론을 통해 알코올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사회에 규범이 없는 상태를 아노미(anomie)로 규정하고 있는 Durkheim에 따르면 사회구성원 각자가 아노미상태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원 각자가 자신의 생의 목적과 사회적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며 전통과 사회적 질서가 살아 있는 도덕공동체(moral community)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성원들이 도덕적 방향감각을 잃고 사회가 규제기능을 상실할 때, 즉 아노미상태에 있으면 알코올중독자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것이다(White, 1982). 도덕공동체 성원과 아노미상태에 있는 사회성원은 상호작용의 구조에서 다를 것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아노미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성원들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도덕

적 방향감각이 있는 사회의 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은 서로가 잘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성을 가지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성원의 음주행동에서 예측력이 부족하고 일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노미적 상태에 있는 사회성원들에게서 더 클 것이다.

사회학에서 쓰이는 문화전파론(cultural transmission theory)이⁹⁾ 일탈음주행동을 설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White, 1982). 사회전체의 음주규범에 관계없이 준거집단이 과음등과 같은 일탈적 음주행동을 지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하위집단이라면 성원들이 과음을 규범으로 내면화하게 되며 이렇게 내면화된 규범에 의해 계속적으로 과음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알코올중독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 하위집단문화가 지지하고 보상을 주는 행동을 내면화하게 되면 전체 사회가 일탈자로 규정하는 행동이라도 하위집단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는 문화전파론은 전체 사회에서 특정 하위집단이 높은 알코올중독자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을 요약해보면 사회의 규범이란 집단마다 다르며 음주와 관련된 규범도 마찬가지로 라는 것이다. 상이한 집단내에서도 개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 또는 음주상황에 따라서 음주행동을 통제하는 규범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같은 문화권이라도 성에 따라서 또는 연령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여자나 남자나에 따라서 또는 청소년이나 성인이나에 따라서 음주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다를 것이며 이에 따라 알코올 사용에 대한 태도도 다를 것이다. 음주규범 또는 이와 관련된 행동규범이 하위집단마다 다를 경우 동일사회 성원들이라도, 똑같은 사회적 상황에 있더라도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범지대(skid row)에 살고 있는 회교도 청소년과 유대인 청소년들의 경우, 과음

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압력을 성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 각각은 자신들의 종교적 규범에 따라 음주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Room, 1975). 음주규범 또는 이와 관련된 행동규범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위의 연구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규범이란 하나의 사회통제 기전으로 어떤 행동을 조장할 수도 또는 억제할 수도 있으며, 개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부담이 되는 행동이라도 강제적으로 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과음이 음주자에게 폐해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과음하도록 강요하는 음주규범은 이러한 강제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음주규범의 내용도 다양하다(Room, 1975). 어떤 규범은 음주량을 통제하는 내용이나 마신 알코올량에 관계없이 음주 전후의 행동규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교도의 경우나 유대인의 경우가 알코올문제에 시사하는 바는 음주자가 얼마나 많으나 보다는 음주규범의 존재여부가 일탈적 음주행동의 발달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Durkheim의 이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Ⅶ. 음주규범과 사회적 의존의 연계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집단 수준과 사회연결망 수준에서의 연구들에 의하면 개인들간의 음주행동에는 상호의존적인 집단역학이 있다는 것과 사회집단에 따라 다양한 음주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호의존적인 집단역학에 의해 집단성원들간의 음주행동에 유사성이 형성되며 이런 과정에서 알코올에 대한 민감도가 개인적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알코올에 대한 민감도가 개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인정되지 못하고 무

9) 일종의 사회화 이론(socialization theory)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시되어 개인이 자신이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알코올을 소비하게 되며 이러한 음주행동이 사회적으로 기대되거나 압력에 의한 것일 때, 알코올의 사회적 의존이 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의존이, 집단에 따라 다양한 음주규범이 전제된다고 할 때, 다양한 음주규범을 갖는 사회집단에서 유사한 양태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 의존을 상이한 음주규범을 갖는 사회집단과 연계하여 보려는 시도는 찾을 수 없다. 집단규범에 따라 알코올의 사회적 의존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에 대한 탐색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알코올의 사회적 의존에 관한 기존의 개념적인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몇가지 측면들을 첨가하여 이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의존에서 핵심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알코올에 대한 생리학적인 반응에 개인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Kim, 1994). 즉 집단이 개인에 우선하는 사회구조를 갖는, 예컨대 가족주의적 사회구조를 갖는 사회와 개인주의적인 사회구조를 갖는 사회는 알코올 민감도에 대한 개인차의 무시정도가 다를 것이다. 집단성원간의 결속력이 개인의 자유에 우선하는 집단과 이와 정반대되는 사회구조를 갖는 즉 집단결속력에 대한 강도가 약한 집단대를 비교할 때 개인차가 무시되는 정도가 다를 것이고 따라서 사회적 의존의 정도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물론 사회적 의존의 성격과 정도가 사회구조의 특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체 국가의 역사적,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음주량, 음주빈도, 알코올종류의 선호도 등의 음주행동이 집단내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사성을 갖게 되며 이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은 고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유동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술을 적게 마시는 쪽보다는 많이 마시는 쪽으로 개인들간의 유사성이 형성될 수는 있으나 많이 마시는 쪽에서 적게 마시는 쪽으로의 일방적인 압력이나 아니면 역방향으로의 사회적 압력이나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집단내 개인간의 집단역학관계에 따라 항상 변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인식일 것이다.

성원들의 구체적인 음주행동을 결정하는 음주규범이 얼마만큼의 양을 어떻게 마셔야 한다는 것을 규제하며 이러한 규제는 음주상황(drinking situations)에 따라 상이하지만 음주가 집단수준에서 이루어질 때는 참여한 성원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종의 표준기준량(standard level of amounts)이 만들어지게 된다. 표준기준량의 결정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누구인가? 알코올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약한 즉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사람인가? 가장 많이 마시는 사람 일 개인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적게 마시는 사람들의 기준보다는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Straus(1983, 1984)는 주장하고 있다. 표준기준량의 설정이 단순히 알코올 민감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알코올 민감도 이외에도 음주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성원들간의 사회적 권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Kim, 1994).

갈등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음주에 관한 표준기준량, 음주예절 등은 사회적 관계에서 우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준이 열악한 사회관계 자원을 가진 개인에 우선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컨대, 회사의 회식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기준량은 사장이 술을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 경우와 술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를 것이다. 적게 마시는 사장과 많이 마시는 부하들 사이에 설정될 표준기준량은 부하의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사장의 기준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알코올에 대한 사장들의 민감도

를 통제하여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사장의 회식상황에 대한 상황정의에 따라 표준기준량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장의 상황정의가 이번 회식은 간단하게 술을 마실 것이라고 상황정의할 때와 많이 마시는 회식이라고 상황정의를 할 때의 표준기준량은¹⁰⁾ 전혀 다르게 설정될 것이다. 많이 마시는 회식의 경우 표준기준량이 훨씬 높을 것이다. 이처럼 표준기준량의 설정에 있어 사회적 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표준기준량의 설정과정에 생리적인 요인들 이외에도 사회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들의 영향력 정도는 물론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전체 사회의 사회구조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이외에도, 상징적 상호작용들의 입장에 의하면 음주규범은 이미 주어진 것(given)을 개인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견조정(negotiation)의 결과라고 볼 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음주규범에 대한 연구도 사회적 의존의 특성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음주규범의 형성과 변화를 다른 행동규범과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도 흥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Ⅶ. 결 론

음주행동에 대한 이해는 생심리사회적인 분석들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각자의 학문적인 영역을 뛰어 넘지 못한채 자신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제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음주행동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요인들에만 근거해서 음주행동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것도 어떤 요인들에

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음주행동 설명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 온 음주행동의 사회적 측면을 논의해 보았다. 이러한 노력은 음주행동의 종합적인 분석틀 개발에 필요한 것이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온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환기시키고 그에 관한 지식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탈적 음주행동에 관한 원인론적 연구들 대부분이 생리적 또는 심리적 입장에서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틈새가 적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음주남용 또는 알코올의존에 이르게 되는 원인론적인 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회적 기전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심리적 또는 생리적 기전에 의존해 온 것이다. 대부분의 원인론적 연구들이 개인의 내부속에서 알코올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 논문은 원인을 개인 내부에서 찾기보다는 개인에 외재하고 있는(external to individuals) 요인들 중에서 음주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음주행동이란 하나의 사회적 사실(social fact)로 이해하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요인들만으로 음주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은 아니다.

집단수준에서 음주가 이루어질 때, 알코올에 대한 개인적 민감도의 차이가 무시되고 자기주량 이상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압력 때문에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것을 사회적 의존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근거들을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았다. 마시는 알코올의 양, 마시는 술의 종류 등에서 집단 내 개인간에 상호의존성이 있었으며 사회전체적으로는 음주규범이 있어서 이에 따라 음주행동이 규제된다는 것을 여러가지 사회집단, 특히 종교집단의 예

10) 이때의 표준 기준량은 부하들의 입장에서 볼때 강요된 것일 수도 아니면 사장과 부하직원들간의 상호조정 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사회전체의 음주규범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을 사회적 의존에 연결하여 사회적 의존이 다차원적인 특성이 있다는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일반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음주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나 연구노력들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음주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고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연구하려는 노력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국민 1인당 알코올 소비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활발한 연구활동에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행동에 관한 관심이라는 맥락에서도 연구가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음주행동의 연구는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 또는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음주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에 보건학이 지금까지 기여한 것은 그리 크지 않다고 여겨진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직까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을 뿐, 왜 어떤 과정을 통해 술을 마시게 되며 일탈적인 음주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 특히 분석적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음주행동의 원인론적 분석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사회적 의존이 보건학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것이 다른 알코올 의존 형태-심리적 의존과 생리적 의존-에 이르게 되는 관문이기(Straus, 1983)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의존이 청소년집단에서 대표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바, 청소년 음주문제를 다룰 때 그들의 음주행동에는 사회적 의존이 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한 보건정책이나 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회적 의존에서 심리적 의존 또

는 생리적 의존단계로 전환되어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보건학적 과제라고 본다. 효과적인 보건정책과 보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존이 다차원적 특성을 가지며 사회집단에 따라 상이한 음주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에 관한 공중보건프로그램은 대상이 같은 청소년이라도 지역에 따라 성(gender)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 고 문 헌

1. 송건용, 김영임. 1989년도 국민건강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2. 송건용, 남정자, 최창수, 김태정. 1992년도 국민건강 및 보건외식행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3. Alexander, J. C., B. Giesen, R. Munch, N. Smelser. The Micro-Macro Link,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4. Bales, R. F. "Cultural differences in rates of alcoholism".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4): 480-499, 1946.
5. Bruun, K. Drinking Behavior in Small Groups, Helsinki, Finnish Foundation for Alcohol Studies, 1959.
6. Caudill, B. D. and G. A. Marlatt. "Modeling influences in social drinking, an experimental analogue". Journal of Counsel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405-415, 1975.
7. Clarke, J.C. and J.B. Saunders. Alcoholism and Problem Drinking, Theories and Treatment, Rushcutters, Austria, Pergamon Press, 1988.
8. Collins, R. L., G.A. Parks and G.A. Marlatt. "Social determinants of alcohol consumption; the effects of social interaction and model status on the self-administration of alcohol". Journal of Consulting and

- Clinical Psychology 53: 189-200, 1985.
9. Garlington, W. K. and D. A. DeRicco. "The effect of modeling on drinking rat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Analysis* 10: 207-211, 1977.
 10. Glassner, B. and B. Berg. "How Jews avoid alcohol proble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647-664, 1980.
 11. Glazer, N. "Why Jews stay sober". *Commentary* 13: 181-186, 1952.
 12. Kim, Kwangkee. "A conceptual approach to social dependence on alcohol". *인제논총* 10(1): 445-456, 1994.
 13. Pittman, D.J. "International overview: social and cultural factors in drinking patterns, pathological and nonpathological". *Alcoholism* edited by D.J. Pittman, New York: Harper & Row, 1967, 3-20.
 14. Reid, J. B. "Study of drinking in natural settings". *Behavioral Approaches to Alcoholism*, edited by G.A. Marlatt and P.E. Nathan. New Brunswick, NJ: Rutgers Center of Alcohol Studies, 1978, 145-169.
 15. Room, R. "Normative perspectives on alcohol use and problems". *Journal of Drug Issues* (Fall): 383-367, 1975.
 16. Skog, O. "Social interaction and the distribution of alcohol consumption". *Journal of Drug Issues* (Winter): 71-92, 1980.
 17. Skog, O. "The collectivity of drinking cultures: a theory of distribution of alcohol consumption".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0: 83-99, 1985.
 18. Skog, O. "Drinking and the distribution of alcohol consumption". *Society, Culture, and Drinking Patterns Reexamined*, edited by D. J. Pitterman and H. R. White, New Brunswick, NJ: Rutgers Center of Alcohol Studies, 1991a, 135-156.
 19. Skog, O. "Implications of the distribution theory for drinking and alcoholism". *Society, Culture, and Drinking Patterns Reexamined*, edited by D. J. Pitterman and H. R. White, New Brunswick, NJ: Rutgers Center of Alcohol Studies, 1991b, 576-597
 20. Snyder, C. R. *Alcohol and Jews: A Cultural Study of Drinking and Sobriety*, Yale Center of Alcohol Studies, Mongr. No. 1,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8.
 21. Straus, R. "Types of alcohol dependence". *The Biology of Alcoholism*, Vol. 6, *The Pathogenesis of Alcoholism: Psychosocial Factors*, edited by B. Kissin and B. Begleiter, New York: Plenum, 1983, 1-16.
 22. Straus, R. "The need to drink too much". *Journal of Drug Issues* (Winter): 125-136, 1984
 23. Straus, R. and S.D. Bacon. *Drinking in Colle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3.
 24. Ullman, A.D. "Sociocultural backgrounds of alcoholism". *Ann. Amer. Acad. Polit. and Social Sci.* 315: 48-54, 1958.
 25. White, H.R. "Sociological theories of etiology of alcoholism". *Alcohol, Science and Society revisited*, edited by E.L. Gomberg, H.R. White, and J. Carpenter.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82, 205-232.
 26. Wilkinson, R. *The Prevention of Drinking Problems: Alcohol Control and Cultural Influenc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Abstract >

Social Dependence of Problem Drinking

Kwang Kee Kim

(Department of Healthcare Management, Inje University)

This study is an effort to bring our attention to social dependence on alcohol, focusing on previous studies of drinking behaviors. Although drinking behavior and problems must be understood in a biopsychosocial framework, a certain aspect is often ignored in alcohol research. A few attention has been paid to social aspect of alcohol abuse or dependence. Social processes of drinking behavior deserve to have same attention as other aspects, psychological and physical aspects of the behavior.

Literature show that the interdependence among group members exists to regulate individual's drinking behavior. Such social interactions tend to control drinking level for individual in terms of amounts, frequency, and preference. The drinking level tends to be dependent on desires for heavy drinkers, ignoring variabilities of individual's sensitivity to alcohol. However, such a heavy-oriented tendency in drinking behavior may have different patterns which are function of normative orientation of alcohol, negotiation among group members, and ethnoreligious characteristics.

Perspectives from conflict tradition and symbolic interactionism are welcomed to illuminate multi-dimentional aspects of social dependence. Policy implication were discussed from public health perspective.